

보통 사람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수험 이야기

여혜진



- 경남과학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 2016년도 5급 공채 검찰사무직렬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제 수험기간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태껏 나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실제 모습은 하나를 배우고 복습까지 하면 겨우 반 정도를 답안에 써내는 철저히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만 합격하는 고시를 보통사람이 합격하려면 그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다만 수기를 읽기 전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법과목을 미리 공부하였으므로 수기내용 중 법학과목 공부 방법은 5급 공채(이하 행시) 검찰직을 첫 시험으로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수험기간

1. 2011년 7월 ~ 2015년 9월 (사법시험 수험기간)

대학교 3학년 시절을 교환학생으로 호주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해외에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세상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고 국내 최고의 시험을 패스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처음 신림에 입성해 무작정 학원을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과생인 저로서는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법률용어가 난무하는 수업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근만 하자는 심정으로 첫 해를 버티고 이 후 두 번의 시험을 더 본 뒤 2014년에 세 번 만에 1차를 합격 하였습니다.

세 번의 1차 시험을 치르며 저는 제 본모습이 게으르고 머리가 그리 좋지 않은 보통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으른 습관은 혼자서 고칠 수 없으니 스테디를 적극 활용하여 타의에 의한 성실함을 만들어 냈고, 머리가 비상하지 않은 점은 남들 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2014년 봄, 저는 시험에 떨어진 줄 알고 복학해 열심히 놓고 있다 1차 합격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법학과도 아니었던지라 2차 과목이 너무 생소해 3개월 만에 합격은 당연불능이라 판단, 초시는 버리고 재시를 노리겠다며 6월까지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방학 때 신림으로 들어와 1순환부터 실감을 듣기 시작했지만 양이 방대한 상법과, 절차법인 소송법들이 너무 어려워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3순환 시즌이 되니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미 2차생 중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 심리적으로도 이미 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5월말~6월초에 3주간 슬럼프를 겪으며 아예 책에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볼 보듯 뻔하게 시험 결과는 탈락이었고 불합격인 시험결과보다 공부를 쉽게 포기한 나에게 더 화가나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를 악물고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2015년 겨울을 맞았습니다.

2.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5급공채 수험기간)

2016년 2월에 역사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남아 있었지만 객관식 공부에 필요한 판례들을 많이 까먹은 상태여서 솔직히 합격할 자신이 없었고, 만일 합격하더라도 2년에 이르는 긴 여정을 다시 겪어낼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해 행시 검찰직으로 시험을 전환하였습니다. 제 선택은 매우 전략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① 사법시험을 공부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정법은 미리 공부해 보았고 특히 형법은 고득점을 받을 자신이 있는 점, ② 나머지 논문과목인 교정학 및 법의학 과목도 사시1차 선택과목이었던 형사정책 및 대학교 전공과목과 유사하다는 점, ③ 우연찮은 기회에 접하게 된 형사분야에서 쌓은 사회경험들을 3차 면접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토익점수도 한국어 자격증도 없을 때라 부랴부랴 밤을 새가며 공부해 자격요건을 만들고 PSAT 스테디를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기간에는 2차 공부를 일절 하지 않았는데, PSAT시험이 너무 생소하기도 했고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2차 공부가

아무 의미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차 시험을 보고 그 뒷날인 3월 6일부터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해 뒤쳐진 공부를 따라잡으려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공안직 특유의 높은 경쟁률과 사시폐지 및 로스쿨로 인한 신규 진입자들의 유입 등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마음이 싱숭생숭했기에 3월의 일정은 스테디로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내내 스테디에 끌려 다니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고 1차 합격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2차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공부 방법과 면접 준비방법은 아래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Ⅲ. 수험공부방법

1. 제1차시험-PSAT (76.6점)

저와 같이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진로를 바꿔 행시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장벽을 느끼는 것이 PSAT입니다. 이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 기준을 정해 스스로 진입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행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어 설정한 기준은 평균 60점이었습니다. 시험 스킬을 익히면 10~15점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공안직 커트라인이 매년 그 즈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No base상태로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62.5점의 점수가 나왔고, 15점을 올리겠다는 각오로 마음을 굳게 먹고 진입을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재라 믿고 12월에 피셋 스테디에 들어가 기출 7개년치를 먼저 풀고 감을 익힌 뒤(1회독), 모강을 수강하며 두 번째 기출문제풀이를 병행하였습니다(2회독). 문제를 계속 풀다보니 유형들이 눈에 익기 시작하여 최근 5개년치는 보기를 하나씩 조목조목 뜯어가며 집중분석을 했습니다(3회독). 기출 문제는 이 후에도 시험 바로 전 날 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으니 적어도 5회독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료해석은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였고, 감을 유지하기 위해 비타민을 매일 몇 장씩 풀었습니다. 언어논리는 논리문제유형이 생소하여 김우진 강사님의 논리특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상황판단은 제가 퀴즈에 강한 편이 아니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법조문문제였고 기출과 모강에서 정답률이 매우 높았지만 막상 16년 시험에서 몇 문제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1차 시험을 보고 난 후 점수가 잘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제가 딱 합격선이어서 가슴을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안직의 커트라인은 매년 변수가 있으나 대충 일반행정직렬에서 평균 3점정도 낮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제2차시험

(1) 전반적인 공부방식

지난 수험기간 중 시험이 실패한 해를 돌이켜 보면 컨디션이 좋을 때만 공부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효율이 좋을 때 공부를 하면 이해도 측면에서 더 좋기는 하지만 공부량이 많은 고시공부 특성 상 절대적인 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욕심은 내지 않고 일주일 목표시간을 50시간으로 잡고 공부하였는데,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부의 유형을 ‘① 밑줄잡음 등 단순정리 ② 깊은 사고를 요하는 정독 ③ 답안지 작성’으로 나누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정독을, 피곤할 때 답안지 작성과 단순정리를 하며 책상에서 버텼습니다.

2016 3순환 기간에는 단기간에 극도의 효율을 내야 했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세과목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2~3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개어 과목을 바꾸어가며 공부하여 뇌가 지루하지 않게 하였고, 일어나기 힘든 아침시간(8시-10시)과 졸린 오후시간(4시-6시) 집에 가고 싶은 밤 시간(11시-12시)에 모두 스테디를 잡아 게으른 저를 스스로 통제하였습니다. 아침스테디에서는 뇌가 아직 다 깨지 않아 주로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썼고, 오후 스테디에선 교정학만, 밤 스테디에서는 행정법만 공부하여 과목별 긴장감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학은 일요일에만 공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험 직전인 6월 중순부터는 체력이 고갈되어 30분 공부하고 30분을 누워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수액도 3번 정도 맞았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좋았지만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PSAT 준비기간인 1월부터 운동을 일절 안하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하루 한시간정도 투자하면 당장은 시간이 아까운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꼭 운동은 시험 직전까지 병행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소수직은 뽑는 인원이 극히 적은 반면 경쟁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 폭발하는 경쟁률에서 시선을 돌려 매년 검찰직 2차 커트라인이 55점을 넘지 않는 것을 보고 각 과목별로 목표점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경쟁할 수 있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2) 형법 (69.66점)

형법은 사법시험을 치르며 쌓인 기본기가 있었고 사법시험 2차에서 꽤 좋은 점수를 받아보았기에 가장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형법을 전략과목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70점을 목표로 4월 이후에 매일 마다 케이스 문제를 5개 이상 보았

습니다. 주교재로는 이재상 박사님의 『Case 바이블』을 보았고 이에 덧붙여 이재상 강사님의 15년, 16년 2개년 치 2순환, 3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보았습니다. 강의는 이재상 박사님의 사법시험용 강의 3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주 교재는 조문, 학설, 판례, 검토를 답안지에 쓸 핵심어 위주로 각기 다른 형광펜을 사용해 강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색의 형광펜을 쓰면 문단의 내용이 색으로 구분이 쉽게 되어 다음에 책을 볼 때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보며 쟁점 뽑기 연습을 하고 답안지를 직접 많이 써보기도 했지만 특히 모의고사의 최고답안을 보며 실전 분량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압축적으로 서술해야 하는지를 벤치마킹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답안지를 쓸 때 총론문제는 범죄체계에 맞는 논리적 서술을 하되, 목차 제목을 따로 뽑지는 않고 번호만 매기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썼습니다. 저는 글씨가 빠른 편이라 10장을 다 채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실히 채우려고 하였고, 특히 각론문제에서 최대한 죄를 많이 뽑고 마지막 죄수까지 깔끔히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니 형사문제는 사시문제에 비해 공무원에 관한 죄가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서 특히 뇌물파트 구성요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전에서는 예상한 대로 공무원에 관한 죄가 2문에서 나왔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좋은 점수가 나올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63.00점)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형소법을 보긴 했지만 공부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형법에 비해 자신이 있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형소법은 형사재판의 일련절차를 한번 파악하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과목인데, 지난 1년간 절차는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판단하여 목표점수를 65점으로 잡았습니다. 실전에서는 2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와 조문을 찾아보며 더듬더듬 서술을 하였고, 목표치에 조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 교재는 정주형 강사님의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을 보았고 2순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광펜 작업을 다 했습니다. 형소법도 정주형 강사님의 최근 2개년 2순환, 3순환 모의고사 문제를 함께 보았는데, 사례집을 따로 보지 않았기에 모의고사 문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6월 초 사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며 시간을 정해 50점짜리 사례를 외우고 입으로 낭독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여 빠른 속도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답안을 쓸 때는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적시하려고 판례의 두문자를 따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4) 행정법 (49.33점)

소문에 공안직은 행정법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고 들어 45점 이상만 맞자는 생각으로 방어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행정법에는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였고, 틈틈이 핸드북을 갖고 다니며 식사시간 등을 이용해 공부 하였습니다. 다만 4월 초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 봄기운이 돌아 붕 뜨는 마음을 잡기 위해 3순환 실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주 교재로 정성균 강사님의 『행정법 Handbook』을 보았고, 『행정법 엑기스』와 『행정법 엑기스 사례연습』 그리고 강사님이 나눠주신 논문자료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핸드북에 옮겨 적는 식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다만 단권화된 핸드북은 그 누구보다 회독수를 많이 하였고 자부할 만큼 반복하여 답안지에 그대로 써낼 수 있게 연습했습니다.

다만 제 방식대로의 공부는 판례를 많이 보지 못하니 판례집을 따로 정해 공부하시면 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제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 다른 수험생 보다 판례 서술이 적었으나, 논리 구성을 탄탄하게 만들고 핸드북에서 외웠던 내용만큼은 충실히 적으니 50점에 가까운 점수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교정학 (67.00점)

교정학은 강의지원도 되지 않고 정보도 많이 없어 기출문제 분석을 가장 중점에 두고 하였습니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최근 7개년치 문제를 인쇄하여 책에서 그 위치를 찾아가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하였습니다. 법과목에는 익숙했지만 논문과목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라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니 교정학은 법과목보다 점수도 잘 주고 서술방법도 다르니 넓고 알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목표점수를 60점으로 설정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검찰직을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를 찾아보니 7·9급용 교재인 『메카교정학』을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아 이를 필두로 하여 더 공부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도교정학』과 이운호 교수님의 『교정학』을 추가해서 보았고, 따로 최신 교정이슈를 주제로 한 단행본도 읽었습니다. 특히 저는 논문이 주교재라고 할 만큼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 틈틈이 논문을 읽었고, 교정본부에서 발간하는 『월간교정』을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며 형광펜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 3개월간 논문을 50편 가량 읽은 것 같은데, 기출문제 중 제도의 장·단점 및 문제점 분석, 한국 교정への 적용 등은 7·9급 교재만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영역이었기에 논문을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위에 적힌 교재들이 양이 많아 보이지만 가볍게 넘기며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가며 읽으신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나왔던 문제 중 3문은 수험생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문제였는데, 저는 위 방식으로 공부영역을 넓히다 보니 운이 좋게 보호관찰법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 다른 분들 보다 수월하게 답안을 쓸 수 있었습니다. 형집행법 조문은 시간이 없어 외우지 못하였는데, 교정직에 합격하신 다른 분께서는 조문까지 적시하여 저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으셨으니 본인 역량에 따라 암기여부를 취사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법의학 - 선택과목 (31.66점)

제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며 다른 사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과목이 법의학입니다. 주교재인 강대영 교수님의 『법의학』 책도 친한 학교 후배한테 받아 공부하였고, 의대에 다니는 친구들을 괴롭히가며 익힌 지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목표점수는 30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법의학도 강의지원이 되지 않기에 기출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는 다 구해 책에 위치를 표시해두고 주요 쟁점은 모두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법의학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수기를 읽고 대학교 때 관심이 있어 수강한 생명공학수업에서 배운 DNA분석기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반응이 나오는 문제는 화학기호로 답안을 적어 채점자에게 전문적인 느낌을 주려 하였고, 뇌 파트를 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16년 문제에서는 평소 나오지 않던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지만 아는 것을 충실히 쓰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임했더니 목표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 제3차시험-면접

저는 나름대로 만족할 만큼 2차시험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여름을 헛되이 보내긴 싫어 사전면접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스터디는 각자 맡은 행정부처의 주요정책을 조사해 공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면접 절차와 방식을 익히고 모의 면접도 몇 차례 진행해보기는 하였지만 2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다들 마음이 잡히지 않아 마지막엔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습니다.

2차시험의 발표가 난 후 3주간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 면접학원에 등록하여 매일 풀 모의면접을 하였습니다. 주중에는 학원을 다니고 주말에는 학교로 가

선배님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었는데, 저는 같은 또래의 수험생들끼리 주고받는 피드백보다 교수님과 같은 어른들의 피드백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할 때 나오는 습관을 실제 면접관과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면접 때도 자신이 원하는 부처와 연관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검찰청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 봉사 활동한 경험과 형사 정책연구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적절히 답변에 녹여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답변을 하든 마지막은 공직가치와 연결하는 것이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직 면접은 2차시험 성적대로 간다고들 하지만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성적을 알 길이 없으니 우수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중 반드시 1명이 떨어지고 3명이 모두 모여 같은 면접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멘탈관리는 끝까지 잘 해 주셔야 합니다.

IV. 마치며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대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안지를 빼곡히 채워나갈 수 있는 실력과 담대함을 갖추는 것이 합격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기나긴 수험 레이스는 완주만 하면 합격할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완주를 위한 원동력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고,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또한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정도면 합격할 만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사는 것이 두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하루 일과를 부모님께 그대로 얘기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는 알찬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하루들이 쌓여 합격을 이루어 냅니다.

제 수기는 단기간 합격을 원하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합격을 위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공부할 수 있는 보통 수험생들,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의 수재는 아니더라도 조용히 국가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보통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단 한권의 책이라도 더 보고, 단 30분이라도 책상에 더 앉아 있던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보통수험생 여러분, 지지치 마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